가을이면 더욱 신경 써야 할 자동차 관리 포인트

기온이 내려가는 가을에는 자동차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기온이 내려가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커 아침이면 자동차 유리창에 습기가 서리거나 낙엽이 떨어져 운전 중 시야를 방해할 수 있고 배터리 성능도 떨어질 수 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blog.naver.com/prologue/PrologueList.nav-er?blogId=sfdirect)가 가을맞이 자동차 관리법을 소개했다.

■ 각종 오일류 점검

여름의 뜨거운 날씨 때문에 각종 오일류의 양이 줄어들거나 상태가 변질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오일류를 점검해야 한다.

먼저 엔진오일은 차량의 엔진룸을 열어 ENG OIL이라고 써져 있는 노란색 손잡이의 엔진오일 게이지바(차종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를 확인한다. 엔진오일 게이지 바에 보면 LOW와 HIGH가 있는데, 이때 엔진오일양은 중간 정도에 위치하도록 관리한다.

미션오일 역시 미션오일 게이지 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션오일의 색상과 점도를 확인하고 잔량을 체크하면 되는데 색이 탁하거나 이물질이 있다면 미션오일을 교체해야 한다. 또한 엔진오일과 마찬가지로 LOW와 HIGH의 중간 정도로 잔량을 관리한다.

브레이크 오일은 브레이크 오일 통을 확인해 잔량과 색상, 점도를 확인한다. 혹시 브레이크 오일에 기포가 발생해 있거나 점도가 없는 경우에는 꼭 교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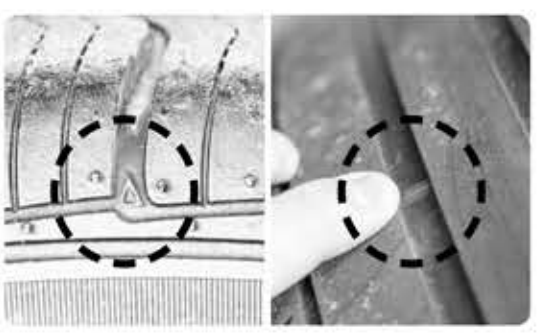
■ 배터리 점검

기온이 내려가면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 방전이 될 수 있다. 겨울철이면 배터리 방전이 자주 일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을에 미리 배터리 점검을 해놓으면 좋다.

배터리에 점검표시창(인디케이터)이 있다면 여기에 나타나는 색으로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녹색은 정상, 흰색은 교체가 필요한 상태, 검은색은 충전이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또한 오래된 배터리는 교체하는 것이 좋으며 블랙박스는 주행할 때 외에는 전원을 차단해 놓는 것이 배터리 방전 예방을 위해 좋다.

■ 타이어 관리

가을철엔 서리와 노면의 낙엽 등 길을 미끄럽게 하는 요소들이 많다. 이럴 때 만약 타이어의 트레드(바닥면)가 닳았거나 수명이 다한 경우라면 차량이 쉽게 미끄러져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을철엔 타이어 마모를 꼭 확인하도록 한다.



타이어의 마모 정도는 타이어의 마모한계선 체크를 통해 알 수 있다. 자동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한 뒤, 핸들을 좌측으로 끝까지 돌린 후에 시동을 끄고 운전석 앞바퀴를 확인한다. 그러면 타이어 옆면 모서리 쪽에 ▲ 모양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모양을 따라 타이어 트레드 쪽의 '타이어 마모한계 표시' 를 확인하면 타이어가 어느 정도 마모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한쪽만 보지 말고 안쪽과 중앙, 바깥쪽 모두를 확인하는 것이다. 간혹 이상 마모가 생길 경우 바깥쪽은 정상이지만 안쪽이 다 마모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이라도 마모 한계선까지 마모가 되었다면 타이어를 교체한다.

또한, 기온이 떨어지는 가을철엔 타이어 공기압 변화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타이어 마모뿐만 아니라 공기압도 같이 체크해 준다.

■ 안개등 점검

가을에는 일교차로 인해 안개가 자주 끼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해 안개등을 점검한다. 안개등이 제대로 점등되는지 확인하고 점등되지 않는다면 전구 교체 등 안개등을 수리한다.

■ 뒷유리 & 사이드미러 열선 점검

일교차가 큰 가을에는 자동차 유리에 서리가 끼기 쉽다. 그러므로 시야 확보를 위해 뒷유리와 사이드미러의 열선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먼저 rear 버튼을 눌러 뒷유리와 사이드미러의 열선을 켠다. 5분 후 해당 부분에 입김을 불어보고, 만약 입김이 바로 사라지지 않으면 점검이 필요한 것이다.

사진=shutterstock

사장님,
힘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께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